Homo Migrans Vol.15 (Nov. 2016): 142-149

서평

Antoine Sabbagh, *Lettre de Drancy*, Paris, Seuil, 2002.

김 경 민

I

한 손으로 충분히 쥐어지는 크기인 작은 책의 표지에는 어떤 표정인지 알 수 없는 여섯 사람들의 사진들이 놓여 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기도 힘든 사진들 밑으로 마침표와 쉼표 사이사이 마다 쓰인 숫자들은 출생연도로 추정된다. 이 사진들과 숫자의 연관성을 생각하며 안의 내용을 짐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책은 바로 유대인 수용소에 억류되어있던 사람들이 남긴 편지 모음집이다. 2002년에 제작된 책으로 총 36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8개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 편지 모음집 안에는 관공서로 보낸 "공적 편지"들과 개인적인 주변인한테 보낸 "사적 편지"들이 어우러져 있다.

편지들은 벨디브(Vél d'Hiv)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벨디브 사건은 일명 "동계경륜장의 대검거(la rafle du Vélodrome d'Hiver)" 라고 불린다. 1942년 7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의 유대인들을 검거하기 위해 벌였던 나치 독일의 "봄바람 작전(l'opération de vent de printemps)"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비시정부가 약 7000명 이상의 프랑스 경찰을 동원하여 파리와 파리 근교 지역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검거하여 동계경륜장(Vélodrome d'Hiver)에 집결시켰던 것을 말한다. 7월 16일, 17일 이틀 사이에 13,152명의 유대인(3,118명의 성인남성, 5,919명의 성인여성과 4,115명의 아이들)이 체포되었다. 이전 검거 과정과는 달리 처음으로 성인 남성 이외에 여성, 아이, 노인들도 포함되었다.[1] 이들은 이후 드랑시 수용소(Camp de Drancy)에 수용되었다가, 대부분 아우슈비츠(Auschwitz)에서 희생된다.

발신지가 동계경륜장이라고 언급된 편지들은 연행된 유대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어떤 이는 음식물과 갈아입을 옷을 챙겨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음식의 배급이 매우 부실했음을 주변 친지에게 알리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아주 갑작스럽게 연행되고 수감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942년 7월 16일-17일에 걸친 유대인 검거를 통해 이들을 체포하고 경륜장에 수용한 주체는 독일군 병사나 게슈타포가 아니라 전적으로 프랑스 경관과 헌병이었다. 이것을 통해 비시정부가 철저하게 대독협력정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총 92개의 사적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형제 등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7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수신자가 친구로 표시되어 있는 4통의 편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의 분류하기 애매하지만 집주인, 자신이 다니던 학교 등에 보내는 편지가 모두 11개가 있다. 이 편지들은 공통적으로 관공서에 비해 자신이 처한 주변 이야기와 감정에 치중한 것들이 많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심정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사랑하는 엄마와 귀여운 여동생에게
> 나는 엄마와 여동생에게 말하기 위해 공식적으로(officielle) 처음 엽서를 써요. 난 건강도 양호하고 정신상태도 멀쩡해요. 아버지와 있으면서 같은 침대를 사용하고 함께 잠을 자요. 아빠와 나에게

1) 이용우, 「벨디브(Vél d'Hiv)의 기념 : 비시 공화국, 프랑스(1992-1995)」, 『이화사학연구』, 48집(2014), 273쪽.

> 15일마다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소포에 내 이름을 잘 써서 넣어주세요. 소포를 들고 직접 올 수도 있어요. 전체 주소를 또박또박 적어야 할 거에요. 담배는 금지 물품이지만 돌아갈 때를 위해서 챙겨 와도 돼요. 음식물도 금지물품이에요. 그리고 담요를 보내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점점 추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캠핑 가방 안에 말한 모든 것들을 넣어서 나한테 부쳐주세요. 내 기관지를 위한 약초 상자를 보내줘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검은색 알약을 보내줬으면 해요. 나는 당신을 힘껏 포옹하고 싶어요.[2)]

이 편지는 가족에게 보내는 대표적인 편지로 수용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드랑시 수용소의 환경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편지 첫줄에 나타난 "공식적으로(officielle)" 라는 표현이 가족들에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하기에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표현은 수용소의 통제 상황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듯 하다. 편지를 쓴 주인공은 1941년 8월 20일 당시 21세의 나이로 체포되었다. 드랑시 수용소에서 1941년 9월부터 1943년 6월 까지 22개월 동안 수용되어 있었으며 1943년 6월 23일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그러나 절멸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1995년 2월에 사망하였다.

II

관공서나 고위관료에게 보내진 공적편지는 총 36개이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편지는 유대인문제총국(Commissariat Général aux Questions Juives, CGQJ)으로 보내진 편지이다. 수신인이 유대인문제총국으로 표시된 편지는 총 9개가 있으며, 이 반유대주의 기구의 장(長)이었던 자비에 발라(Xavier Vallat)와 루이 다르키에 드 펠푸아(Louis Darquier de Pellepoix)에게 그들의 재임기간 동안

2) Antoine Sabbagh, *Lettres de Drancy* (Paris: Seuil, 2002), p. 27.

각각 5통과 2통의 편지가 보내졌다. 유대인문제총국은 프랑스의 비시정부 하에서 유대인 문제를 전담하던 부서였다. 유대인의 검거부터 절멸정책까지 가는 동안 전적으로 프랑스 관리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 기구는 유대인의 지위에 관한 법을 통해 유대인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관련된 여러 부서들과의 조율을 담당했으며, 유대인 재산의 관리와 청산을 비롯해 모든 치안 조치를 주도하였다.[3)]

이 공적 편지들 속에서 드랑시 수용소(Camp de Drancy)에 보내진 편지 3통을 찾을 수 있다. 이 수용소는 절멸수용소로 가기 전 프랑스에서 검거된 유대인들을 억류하던 곳이다. 특히 1941년 5월부터 파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대인들을 검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1942년에는 벨디브 사건으로 검거된 유대인들을 이곳에 대거 수용 하였다. 이곳은 현재 유대인 학살에 대한 비시정부의 책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물로 활용되고 있다.[4)]

자비에 발라와 루이 다르키에 드 펠푸아 외에도 제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비시의 행정체계의 수장이었던 필립 페탱(Philippe Pétain)에게 향하는 편지가 16통 있으며, 비시 정부 시절 4번에 걸쳐서 총리를 역임했던 라발(Pierre Laval)을 수취인으로 하는 편지가 1통이 있다.

> 자비에 발라씨에게.
> 난 당신에게 내 남편이 8월 21일 저녁 6시 30분에 볼로뉴(센느강)에 있는 마르셀-생바 지하철 역 출구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연행된 이후 나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체포되는 순간 경찰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계

3) 이용우, 「반(反)유대주의와 국가적 협력-독일 강점기 프랑스의 유대인 박해(1940-1944)」, 『서양사론』, 101호(2009), 134쪽.

4) 신동규, 「전쟁기념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 : 사건의 역사학 과정과 감정동원 전략」,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감정의 정치와 국제관계 - 동아시아에서 기억 담론의 경험과 타협·화해 모색』, 2016년 10월 28-29일 창원대학교, 90쪽.

> 출신 프랑스인이라는 것 말고는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내 남편의 부모들은 스트라스부르 근처 비스켐에서 태어났고 1870년에 프랑스를 선택했습니다. 내 남편의 어머니 역시 비스켐 출신입니다; 친조부모의 경우 게브빌러 출신이고 이후 벨포트에서 살았습니다. 내 남편은 파리 11구에서 1897년에 태어났습니다. 1916-19년 동안 독일에서 포로생활을 했던 제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입니다. 그로부터 8년 보다 더 전에 그는 이시-레-물리노 코드롱 르노에 고용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전쟁에 특별히 차출되었습니다. 내가 물어본 불로뉴 경찰서, 코드롱에서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만 대답했습니다. 점령당국도 코드롱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의무를 다하고 제 1차 세계대전에서 20살 나이로 죽은 동생이 있는 프랑스 시민으로 이러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에 놀랐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가족은 (베리숑) 프랑스인이고 아버지는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상이군인입니다.[5)]

이 편지는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하여 당시 대표적 관공서였던 유대인문제총국의 장(長)을 역임했던 자비에 발라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편지이다. 편지 내용에서는 자신의 남편의 행방을 물으면서 프랑스인으로서 남편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가족관계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경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남편의 부모가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이후 알자스-로렌지역이 독일에 합병될 때 프랑스 국적을 선택하고 프랑스 시민으로 살아오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덧붙여서 자신의 계보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아버지가 상이군인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프랑스 국가의 시민으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억울한 심정을 전하고 있다.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 이후에 1791년부터 유대인에게 시민권을 지급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잘 동화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5) Antoine Sabbagh, *Lettres de Drancy*, pp. 28~29.

평가"를 받았다.[6] 유대인에 대한 거부감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을지라도 프랑스 사회 내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고 19세기 중반부터는 다른 프랑스인들과 법적으로도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7] 당시 프랑스 내에 있던 유대계열 언론들은 프랑스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프랑스에 대한 조국애 표현하고 있었다.[8] 프랑스 사회 내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가고 있다고 믿었던 과정에서 유대인이 느끼게 되는 배신감은 상당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III.

이 편지 모음집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지금까지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먼저, 현재까지 이루어진 홀로코스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나치와 히틀러 등 가해자 중심이었다. 특히 나치즘과 전체주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가해자 중심의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김학이의 「홀로코스트 학살자들의 양심」, 「홀로코스트의 근대성」 등이 있으며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 연구로는 『히틀러 국가-나치 정책 혁명의 이념과 현실』(마르틴 브로샤드 저, 김학이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1), 『서양현대사의 블랙박스-나치대학살』(최호근 저, 푸른역사, 2006), 『파시즘의 대중심리』(빌헬름 라이저 저, 황선길 옮김, 그린비, 2006) 등이 있다. 또한 김학이의 『나치즘과 동성애 : 독일의 동성애 담론과 문화』(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13)는 나치즘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주제가 다변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히틀러의 정책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진모의 「나치의 일자리 만들기와 재무장 : 그 신화의 비극」, 김학이의 「나치즘의 근대화 - 경제부문을 중심으로」와 「나치스 군수 정책과 대기업」, 권형진의 「나치 독일의

6) 신행선,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정서와 비시정부의 반유대정책」, 『역사학연구』, 55호(2014), 198쪽.

7) "more judaico" 라고 불리는 차별적 절차들이 1846년에 최종 폐지되었고 유대인들과 프랑스인들은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8) 신행선,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정서와 비시정부의 반유대정책」, 198쪽.

도시건설 프로젝트 : 베를린·뮌헨·뉘른베르크 중심으로」 등의 연구가 대표적인 논문들이다.

최근 기억의 문제에 대한 역사학의 관심이 보여주듯, 홀로코스트를 기념·기억하는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비롯된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연구주제로 자리 잡았다. 최호근은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그는 「미국에서의 홀로코스트 기억변화」, 「집단기억의 역사」,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억과 역사 만들기」등의 연구를 통해 홀로코스트의 기억과 기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했다. 또한 이용일의 「독일-폴란드 관계정상화를 위한 "감정의 정치" : 바르샤바 조약과 브란트의 크니팔」은 감정과 기억, 기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억·기념의 문제는 역사교육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구되고 있다. 최호근의 「기념시설을 활용한 역사교육 : 독일의 경험에 대한 검토」와 권영임의 「제노사이드 백신으로서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이다. 홀로코스트를 과거사와 역사교육 문제로 접근한 연구로는 최호근의 「부담스러운 과거사 교육의 효용과 전략 : 독일·이스라엘·미국의 홀로코스트 비교」, 김희영의 「나치시대 독일의 역사 교육과 그 문제」, 한해정의 「독일 역사 교과서에서 나치시대에 관한 서술 분석 : 집단 박해 및 학살을 중심으로」와 「독일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나치 독재와 홀로코스트」등이 있다.

또한, 홀로코스트를 제노사이드 범주 안에서 보려는 연구 경향이 있다. 최호근은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 제노사이드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토」와 『제노사이드 : 학살과 은폐의 역사』에서 제노사이드의 역사성 안에서 홀로코스트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연구들이 국내외의 대량학살 사건들과 비교하면서 홀로코스트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체주의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중심이 가해자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

범위 확장의 방법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역사서술이다. 홀로코스트에 대해 더욱 다양한 소재로 재구성이 가능해지려면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관점을 더욱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프리모 레비의 자서전들은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레비가 쓴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나 『만약 이것이 인간이라면』 등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또한 김용우의 「프리모 레비의 회색지대」나 「나치 집단수용소와 생병정치-프리모 레비와 조르조 아감벤의 논의를 중심으로」는 이러한 피해자의 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홀로코스트와 전체주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윤영 「초국적 이방인의 보호받지 못한 삶과 죽음 : 나치 수용소 유대인 생존자들의 글을 중심으로」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여기서 이 편지 모음집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피해자의 생생한 기록들이 중심이 되어 또 하나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모습들이 풍부해진다. 더불어 홀로코스트, 제 2차 세계대전 등 관련된 연구에서도 새로운 관점과 다른 모습들로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홀로코스트 피해자 중심의 역사서술은 더 큰 연구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중심에서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창원대학교, kmlove387@naver.com